

지민 '눈물'·RM '행진'...방탄소년단, '핫100 1위' 이면 속앓이

10일 오후 2시간30분가량 열린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 E)'은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아미(ARMY)가 회포를 푸는 자리였다.

온라인을 통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는 계기도 됐다.

특히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를 차지하기까지 겪은 속앓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이런 상처를 극복하게 해준 건 결국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아미였다. 다음은 이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아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말말.

▲지민 = "양코르에서 집중이 안 됐어요. 공연을 준비하기 전 억울하게 있었거든요. 멤버들과 즐겁게 공연하고, 여러분들과 놀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왜 제가 이런 걸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양코르 때 멤버들이 너무 즐겁게 뛰어노는 걸 보고 울컥했어요. 그때부터 집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집중을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걸 다 못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화면 너머로 저희에게 희망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진심이 다 전달됐으면 해요. 이렇게 항상 응원하고 기다려주시는 아미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 100'에서 세 차례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 우리도 정말 열렬했었어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유쾌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낸 곡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나치게 큰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닌지라고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솔 원' 말말말 방탄 멤버들·아미(ARMY), '회포 푸는 자리'

생각해요."

▲RM =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 7년 간의 시간과 멤버 개개인의 고민들을 녹여내려고 했어요. 7년 동안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첫 행진은 일곱 명이 모여 아주 작은 꿈에서 시작했어요. 꿈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말했죠. 사랑, 믿는 거, 지키고 싶은 것들을 버려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들의 말이 꽤 맞았어요. 세상의 문은 견고했고 벽도 높았고 저희를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에 길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많은 이들과 함께 한 행진이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노래하며 영원히 함께 행진할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음악이고 지도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행진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일곱명이 아니고 너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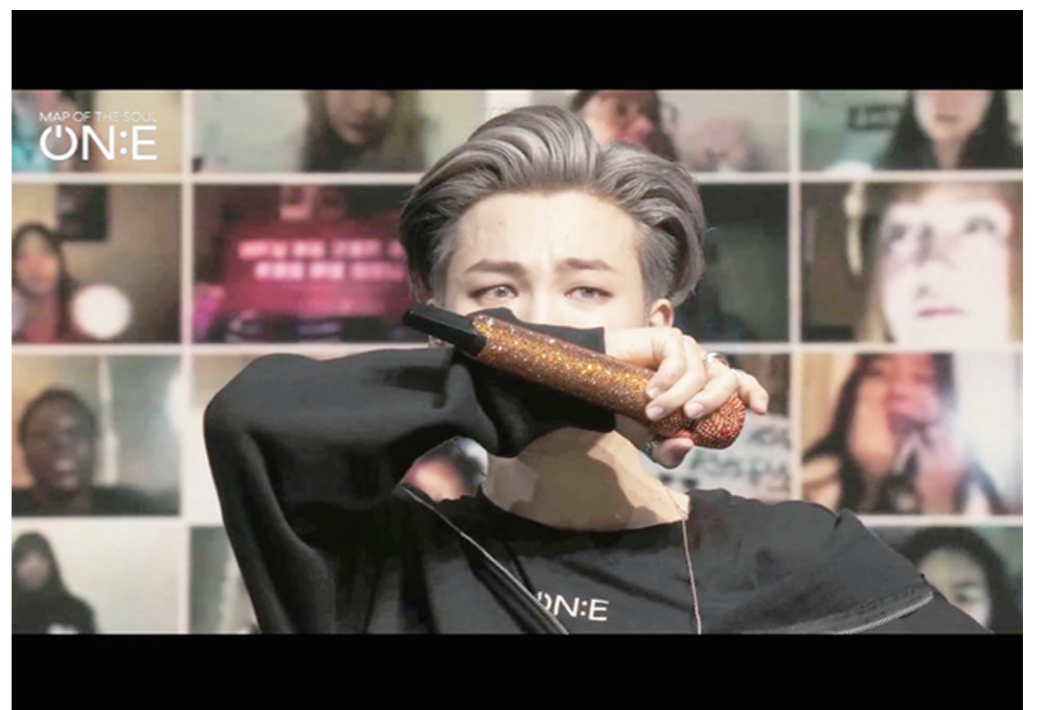
▲정국 = "여러분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힘이 나네요.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은 7년 동안 저희가 함께 달려오면서, 저희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된 계기 같아요. 우리가 누군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저희 일곱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보면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공연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예요. 공연의 80%, 90% 이상이 여러분의 합성을 듣는 것 덕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렇게 오랜만에 합성 소리를 들으면서 공연을 하니 예전 추억들도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코로나19)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힘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활기차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 = "사실 오늘 콘서트를 할 때 예전 공연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온',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콘서트 리허설을 할 때도, 본방할 때도 콘서트 느낌보다는 프로모션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양코르 무대를 할 때 콘서트에서 항상 보던 아미와 알제이(RJ·진 BT21 캐릭터) 인형, 슬로건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50%의 재미만 되찾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콘서트로) 100%의 재미를 되찾을 때까지 항상 아미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슈가 = "오랜만에 (팬들의 합성을) 들으니까 '심쿵'했어요. 변함없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다음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앨범(맵 오브 더 솔 : 7)을 내고 콘서트 준비를 해서 바로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저희는 사실 5-6월이면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공연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과연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많은 것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스타디움에서 여러분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0일 오후 열린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에서 멤버 지민이 팬들 아미에게 이야기를 하던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0.10.10.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들을 뵙고 싶습니다."

▲제이홉 = "솔직히 말씀드리면 80%는 너무 좋고, 20%는 너무 아쉬워요. 비대면 공연이 저희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시도였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결과가 오늘 나온 것 같아서 80% 기분이 좋아요. 20%의 아쉬움은 '공연은 눈을 마주치고 해야 하는데'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저희의 모습을 (오프라인에서) 보여드리는데 날이 왔으면 해요. 사실이 공연은 4월 스타디움 공연으로 보였어야 하는 건데, 밀리고 밀려서 온라인 형태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더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기쁨이 된다면 너무

만족해요."

▲뷔 =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쉽다' '힘들다' 등의 이야기만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힘들죠.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이 콘서트는 아미와 함께 뛰어놀고 같이 부르고 하는 건데 저희 7명이 하나가 힘이 잘 안 나더라고요. 사실 '맵 오브 더 솔 : 7' 타이틀곡인 '온(ON)' 활동할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이게 언제 끝날까'라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아미가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음 공연에는 정말 함께 있었으면 해요."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 뉴욕 타임스퀘어 점령

세계 주요 도시 옥외 광고판 장식

그룹 '블랙핑크'가 첫 정규앨범 '리 앨범'으로 각종 글로벌 차트를 강타한데 이어 세계 주요 도시 옥외 광고판을 점령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BLACKPINK: Light Up the Sky)가 14일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다.

1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넷플릭스에 따르면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 대형 광고가 미국 뉴욕 한복판인 타임스퀘어를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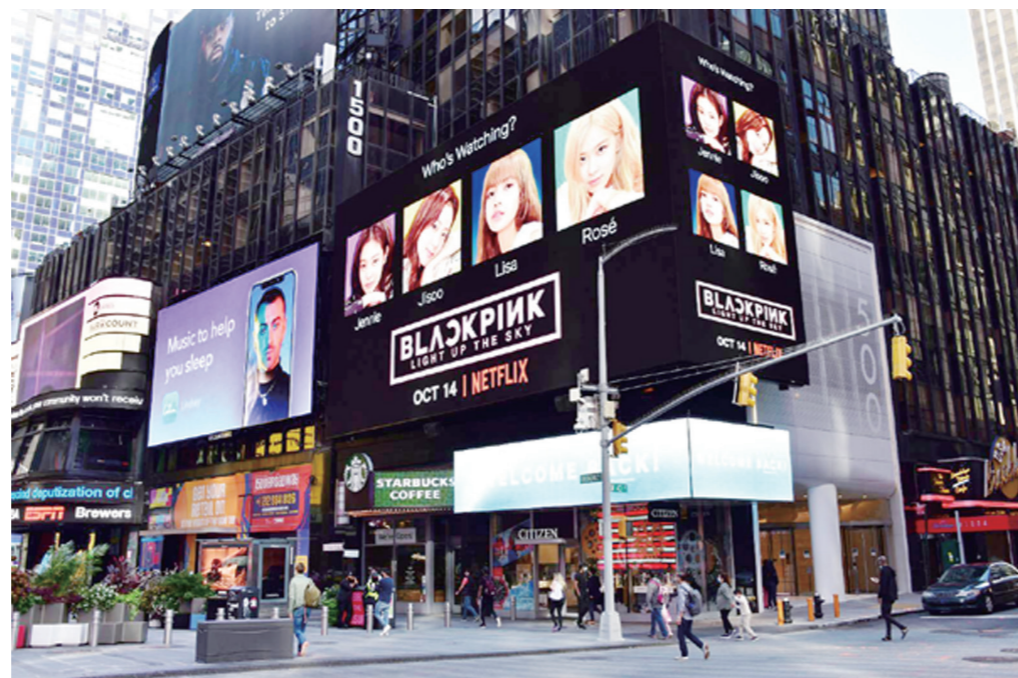
'블랙핑크' 4인 멤버의 초상이 크게 새겨진 이 다큐멘터리 광고는 뉴욕을 시작으로 LA, 파리, 도쿄, 자카르타 등으로 뻗어나갈 예정이다.

넷플릭스의 K팝 관련 다큐멘터리가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광고로 게재된 것은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가 처음이다.

넷플릭스는 그간 수많은 콘텐츠 중 '기묘한 이야기', '종이의 집' 등 세계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를 위주로 타임스퀘어 대형 광고를 게재했다.

한국 작품으로는 '킹덤' 시즌2가 옥외 광고로 전시된 적 있지만 이미 인기가 검증된 드라마였다.

YG는 "K팝 아티스트 최초이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발탁된 블랙핑크



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는 블랙핑크가 2016년 데뷔 이래 숨가쁘게 달려온 4년의 시간을 담았다.

연습생 시절부터 글로벌 스타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영

상을 비롯해 속소 생활, 무대 뒷이야기 등이 다양하게 조명됐다.

특히 다수의 메가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이들의 앨범 녹음 과정과 4인 멤버들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하고 그 안에서 개개인의 삶을 녹여내는지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골목식당 덮죽 표절' 덮죽덮죽 "프랜차이즈 사업 철수"

이상준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포항 덮죽집 메뉴를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 '덮죽덮죽' 이상준 대표가 사과와 함께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이상준 대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본사의 덮죽 프랜차이즈 진행 과정에 있어 '메뉴명 표절' 및 '방송 관련성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직접 덮죽집 대표님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포항으로 직접 찾아뵈었지만 대면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셔서 만나 볼 수 없었다"며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덮죽덮죽' 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 추후에 있어서도 대표님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지켜야 할 상도의를 지키지 않고 대표님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덮죽덮죽은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메뉴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포항 덮죽집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



다면서 "레시피를 훔쳐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도 "포항 덮죽집 사장님을 도울 방법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세븐틴 日 미니 2집 '24', 플래티넘 획득

그룹 '세븐틴'이 일본 미니 2집 '24H'로 현지에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10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일본 레코드 협회는 세븐틴의 일본 두 번째 미니 앨범 '24H'가 '골드 디스크' 인증 작품에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세븐틴이 이번엔 획득한 플래티넘은 음반 누적 출하량이 25만 장 이상을 기록하는 앨범에 수여된다. 세븐틴은 '24H'로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정상을 차지하며 해외 남성 아티스트 사상 첫 네 작품 연속 1위라는 최초의 역사를 쓰는가 하면, 빌보드 재팬을 포함한 일본 주요 주간 앨범 차트 4관왕을 안았다.

세븐틴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18년 일본 데뷔 앨범 '위

메이크 유로' 받은 골드 인증을 시작으로 첫 싱글 '해피 엔딩'으로는 플래티넘을, 두 번째 싱글 '마이오치무하나비라'로 더블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세븐틴은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빛나게 해주시는 캐럿(팬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4H'는 캐럿 분들을 생각하며 만든 곡인데 많은 분께 사랑을 받아서 기쁘다"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현재는 만나지 못하지만)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고 '24H'의 가사를 활용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세븐틴은 오는 19일 오후 6시 스페셜 앨범 '세미콜론(Semicolon)'을 발매한다.

황민현X정다빈, '라이브온' 내달 17일 첫 방송



겪게 되는 상극 케미 로맨스 드라마다.

가수에서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힌 그룹 '뉴이스트'의 황민현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간수업'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보여줬던 정다빈이 만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등학교 방송부를 배경으로 황민현은 안역을 추구하는 엄격한 방송부장 고은택을, 정다빈은 학생들의 선망과 질투의 대상인 안하무인 인물투런서 백호랑 역을 맡아 극과 극 성격으로 어떤 이야기를 그려갈지 궁금증을 불러온다.

또 노중현과 연우는 현실 공감을 일으키는 고등학생 커플 '도우재'와 '강재이' 역을 맡았다.

양해지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방송부 차장 '지소현' 역을 연기하며, 최병찬은 서연고순수 보헤미안 '김유신' 역으로 유쾌한 에너지를 보여줄 예정이다.제작진은 "배우들의 넘치는 열정과 호흡이 조화를 이뤄 활영 내내 활기찬 분위기가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느낀 기분 좋은 에너지가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며 "개성 넘치는 서연고 여섯 학생들의 가슴 뜨겁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민현과 정다빈이 달콤 살벌한 케미를 보여줄 JTBC 새 미니시리즈 '라이브온'이 다음달 첫 방송된다.

12일 JTBC '라이브온' 측은 오는 11월17일 오후 9시30분에 첫 방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온'은 수상한 목적을 가지고 방송부에 들어간 서연고등학교 셀럽 '백호랑'(정다빈)이 엄격한 방송부장 '고은택'(황민현)을 만나